

Special Issue ③



해리포터의 원동력, 영국 창조산업 인력위원회(Creative Skillset) 역할

| 최보연 (영국 워릭대 문화정책학 박사) |

해리포터의 나라. 데미안 허스트와 트레이시 에민 등 YBA(Young British Artists)로 대변되는 현대미술의 강국. 오늘날 우리가 영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쿨 브리태니아(Cool Britanni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며 창조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했던 신노동당 정부(1997-2010)의 전략적인 정책지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2000년대를 관통하며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고, 한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 창조산업정책의 벤치마킹을 선도해 온지 15년이 지난 현재, 영국에서는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정부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구성된 '창조산업 인력위원회(Skillset)'를 소개하고 그들의 전략이 성공적인 성과로 연계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조산업 인력위원회, 스킬셋 (Creative Skillset)

'창조산업 인력위원회(Creative Skillset, 이하 스킬셋)'는 산업별 기술위원회(Sector Skills Council)의 하나로, 영화, TV 및 라디오 등 방송산업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기술훈련 지원을 위해 1992년 설립되었던 'The Sector Skills Council for the Audio Visual Industries'가 그 전신이다. 2000년대 중반, 창조미디어 산업 인력위원회(Skillset: Sectors Council for Creative Medi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애니메이션, 쌍방향미디어, 사진, 패션 및 텍스타일, 컴퓨터게임, 출판, 광고, 더불어 미디어산업을 보조하는 특수기능 산업 (facilities industry) 등 '창조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와 관련된 인력양성업무를 전방위적으로 포용하게 되면서 2012년 공식명칭이 현재의 창조산업 인력위원회(Creative Skillset: the Creative industries' Sector Skills Council (SSC))으로 바뀌었다.

창조산업 인력위원회(Creative Skillset의 변천)



스킬셋의 핵심적 역할은 창조산업 내 다양한 분야 및 직종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기술훈련 지원이 제공되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펀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창조산업 기업체들의 실질적인 생산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관련 분야는 영화, TV, 라디오, 쌍방향미디어, 특수기능(Facilities), 애니메이션, 사진, 컴퓨터게임, 출판, 광고 또는 패션/텍스타일, 뮤직비디오 등을 포함한 콘텐츠 창작 등 12개 영역을 아우른다. 여타 산업군별 인력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스킬셋은 기업체들의 지원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며, 예산규모는 2011-12년 기준 총 £10,263,714 (한화로 약 180억 원) 이른다.¹⁾

스킬셋의 세부업무는 ① 기업체 및 개인대상 펀딩지원과 산업기금조성, ② 창조산업관련 커리어 정보공유 및 컨설팅제공 ③ 창조산업 내 세부 산업군 별로 요하는 '국가직업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지표 및 자격증제도의 개발(standards & qualifications), ④ R&D 기능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기업체 및 개인 대상 펀딩지원사업과 기금조성은 스킬셋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Skills Investment Fund(SIF)'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²⁾ SIF는 1999년 신노동당 정부의 영화산업정책녹서 'A Bigger Picture'의 정책제안에 따라 영화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펀딩제도로 처음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스킬셋은 민간기업체들의 출자금액에 따라 국고지원(재무부의 지원금을 SIF를 통해 스킬셋이 매칭투자)을 1:1로 매칭하는 새로운 SIF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³⁾

이를 통해 민간-정부에서 각각 1천 6백만 파운드씩 출자하여 총 3천 2백만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SIF는 영화, High-end TV, 애니메이션, 게임, 시각효과(VFX) 등 5개의 교차산업 영역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및 숙련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워크샵과 세미나로 구성된 부트캠프(Bootcamp)형식의 초보자를 위한 사전 트레이닝, 도제제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비경력자의 기술습득은 물론 기존 전문경력자들의 기술숙련을 보조할 계획이며, 투자 사업체들의 경우, 훈련된 기술인력을 스킬셋의 현장실습제도(Trainee Placement Scheme)를 통해 고용비용 보조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1) Creative Skillset, "Creative Skillset Annual Report 2011-2012", p.42, 2012

2) http://www.creativeskillset.org/funding/SIF/article_9191_1.asp

3) Creative Skillset, "£32m Skills Investment Fund to support creative growth", 2013. 5.31 일자 보도자료. http://www.creativeskillset.org/funding/SIF/article_9192_1.asp

스킬셋의 또 다른 대표적 펀딩프로그램인 Film Skills Fund(FSF)는 2004년 당시 영국 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의 인력양성 업무가 스킬셋으로 이관되면서, 연간 7백만 파운드의 복권기금을 3년간 지원받았던 것을 모태로 한다. FSF는 현재 영국 내 영화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펀딩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현재까지 총 25백만 파운드가 지원되었다. 2011-2012년 한 해만도 FSF를 통해 훈련된 인력은 1,973명이며, 현재까지 총 수혜자는 20,534명에 달한다.⁴⁾ 이 외에도 TV 방송산업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TV Skills Fund(TVSF)가 있으며, SIF, FSF, TVSF를 포함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스킬셋이 인력양성에 투자한 총 비용은 £3,119,599(한화로 약 60억 원)에 이른다.⁵⁾

스킬셋의 또 다른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커리어 정보공유와 컨설팅'은 기업체 및 개인을 위해 모두 제공되는 서비스다. 개별 사업체들에게는 각기 직종과 직무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 유형을 분석해주고, 기술부족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필요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창조산업 관련 고용시장에 진입 혹은 커리어 숙련을 원하는 개인들을 위해서는 커리어 관련 전화 및 웹사이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스킬셋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Pick the Tick'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영국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격증취득과정이나 전문학위과정, 또한 직능별 직업훈련코스, 산업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훈련코스, 기업체들의 견습제도(apprenticeships)나 인턴십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교육과정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영국 내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들 중 스킬셋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코스와 과정들로만 엄선되어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The Creative Skillset Tick"이라 부른다.

스킬셋(Creative Skillset)이 제공하는 PICK THE TICK 서비스

Find the course that's right for you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Creative Skillset website's search interface. It features four main search categories, each with a 'SEARCH' and 'MORE INFO' button:

- Pick the Tick: Degree courses**: Search for degree courses best suited to prepare you for a job in the creative industries, endorsed by industry and awarded the Creative Skillset Tick.
- Pick the Tick: Short courses**: Search for short courses best suited to your professional development, endorsed by industry and awarded the Creative Skillset Tick.
- Pick the Tick: Apprenticeships**: Search for 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mes that have been assessed and endorsed by industry and awarded the Creative Skillset Tick.
- Search all Courses**: Search the full directory of over 10,000 courses relevant to the creative industries.

The Creative Skillset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on the right side of the interface.

※ 출처 : www.creativeskillset.org

4) Creative Skillset, "Creative Skillset Annual Report 2011-2012", p.24, 2012

5) Creative Skillset, "Creative Skillset Annual Report 2011-2012", p.10, 2012

또한 스킬셋은 TV,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등 총 11개의 세부 산업군별로 요하는 '국가 직업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기술(skills), 지식(knowledge), 경험(experience)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 통합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

고 있으며, 창조산업관련 다양한 기술자격증제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개별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의 수정보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연도 관련기관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스킬셋의 네 번째 업무인 'R&D기능'이 강력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킬셋은 창조산업의 규모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Creative Skillset Employment Census)를 정기적으로 실시, 창조산업의 성장과 고용환경의 변화추이를 추적하고, 각 세부 산업영역 및 직능별로 기술부족현상(skill gap)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미래에 어떤 유형의 새로운 숙련수요(skills needs)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창조사업체들이 당면한 필요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해결책뿐 아니라 창의적 인력양성과 관련된 미래의 대비책을 함께 모색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의 정책공조와 민-관 파트너십을 매개로 통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영화, 애니메이션, High-end TV, 게임, 시각효과(VFX) 등 5개 산업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인력양성을 목표로 민간-관 공동투자에 기반한 새로운 SIF 기금조성의 경우가 바로 스킬셋의 이러한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스킬셋이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 방송 등 미디어 산업군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교차산업(cross cutting sector) 성격의 특수기능 산업(facilities industry)을 창조산업의 주요 영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활용과 수급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기능 산업에는 현재 3,900여 개의 사업체와 4만 5천여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3은 프리랜서의 신분이며, 33%가 여성인력이라고 스킬셋은 분석한다.⁶⁾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술훈련 지원사업은 산업 내 교차산업들의 상호연계 및 시너지효과를 위해 인력의 누수와 기술부족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창조산업의 특정 한 분야가 아닌 전체적인 선순환적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스킬셋의 전략적 인식을 반영한다.

위에서 살펴 본 네 가지 업무영역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스킬셋의 핵심기능은 결국 'Skills Solution'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지속적인 환경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어딘가에 발생할지 모를 인적기술자원의 갭(skill gap)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의인력 양성전략을 담당하는 스킬셋은 명실공히 영국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보수·자민당 연합정부에 의해 창조산업진흥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가 설립된 이후, 아직까지 창조산업관련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킬셋은 창조산업 내 기업체들의 실질적인 조언자이자 이들의 발전방향을 선도하는 전략적인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스킬셋은 특수기능 산업(facilities industry)을 영화 및 TV/라디오 방송관련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기술장비 및 기능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정의한다. 여기서 특수기능(Facilities)라는 말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장비 및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체와 개인 프리랜서들을 총칭하는 집합적 용어로서 쓰이기도 한다(출처: http://www.creativeskillset.org/facilities/industry/article_6791_1.asp)

The Creativity Gap: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공백은 없는가?

그러나 스킬셋이 추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전략 및 일련의 제도적 기반들이 영국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충분조건일 수 있을까? 영국의 현실은 그리 장밋빛인 것만 같지는 않다. 컨설팅전문회사 'BOP Consulting'의 톰 캠벨(Tom Campbell)은 창조산업계가 정부의 세금우대조치와 기업규제완화책 중심의 창조산업 정책비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 내부 전반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무급인턴십 및 견습생 제도를 통한 사업체들의 노동착취적 관행과 시간제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으로 초래되는 창의적 인력기술의 누수를 먼저 막아야한다고 일갈한다. 더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개선은 단순히 정부의 공적투자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산업 내 활동하는 모든 사업체들의 마인드 형성 자체가 전환되어야만 가능할 것임을 지적한다.⁷⁾

캠벨의 비판은 창의적 인력의 공급이 창조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조건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익성 창출과 예산난을 핑계로 고용환경 개선과 인적투자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부 기업체들에게 날리는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부유한 창조산업 기업체들의 이기적인 무급인턴제 활용, 정규직 전환채용의 낮은 비율 등 고질적 병폐는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⁸⁾

2012년 스킬셋 산하 기술자문위원회(Skillset Skills Group)가 창조산업진흥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창조산업에서의 기업체들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인력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체들인 상황에서 자체적인 인적투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현저히 미비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무급인턴 및 견습제도의 무분별한 활용의 근절과 고용환경의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한 바 있다.⁹⁾

최근 본머스예술대학(Arts University Bournemouth)에서 발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가 되기 전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비율이 전체 청소년들의 2/3에 달한다고 한다. 자신들이 꿈꾸었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이는 고작 4.3%에 불과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느끼는 비율은 응답자의 31%에 달했다.¹⁰⁾

미래 창조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 대부분이 자신들의 꿈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현재, 영국에서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들이 꿈을 포기하는 데에는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여건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동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패러다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 출범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영국 교육정책은 여전히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학업능력성취도 향상을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공포하고, 음악, 미술을 비롯한 예술교과를 학교 재량에 따른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교육정책이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비

7) Tom Campbell(2013) "Creative Industries: Forget about Tax Breaks and Focus on Training", The Culture Professional Network, The Guardian, 2013. 4. 2일자 기사

8) Will Wood(2011) "Unpaid internships are exploited by the wealthiest in the creative industry", The culture professional Network, The Guardian, 2011. 11.30일자 기사

9) The CIC Skillset Skills Group, "Report to Creative Industries Council", Creative Skillset, 2012

10) Stuart Semple (2013) "Don't give up your creative dreams!", The Culture Professional Network, The Guardian, 2013.2.25.일자 기사

관하는 목소리는 그간 예술계 및 교육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BBC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교육부장관 마이클 고브(Michael Gove)의 ‘글쓰기 및 읽기 능력(Literacy)과 수리능력(Numeracy) 중심의 학업수행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창의성은 발현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은¹¹⁾ 교육정책의 수장인 그가 얼마나 창의성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히 드러낼뿐 아니라 향후 창조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영국의 찬란함이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창조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창의적 인재양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창의적 인재의 양성은 스킬셋이 주도하는 직업훈련 및 기술 숙련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해리포터의 성공신화를 뒤이을 또 다른 영국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콘텐츠 출현은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에만 집중된 영국 정부의 창의인력 양성정책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진화란, 결국 미래 창조산업의 인력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의 잠재된 창의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창의교육의 제도적 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1) BBC Question Time: Is National Curriculum is ruining Children's creativity in School, 2012.3.21.



〈최보연 박사 프로필〉

- 영국 워릭대 문화정책학 박사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연구소, 박사후연구원

profile

